

##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일시 : 2023. 8. 25.(금) 10:00 ~ 13:09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10명)

위원장 : ○○○

위 원 : ○○○, ○○○, ○○○, ○○○, ○○○, ○○○, ○○○,  
○○○, ○○○

배석자 : ○○○ 과장, ○○○ 팀장, ○○○ 주무관, ○○○ 주무관

◆ 심의안건 (총 43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5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8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9건
- 2024년 서울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 검토 : 20건

(개회)

○ ○○○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재위원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동산분과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먼저 회의 순서는 오늘 첫날이어서 위원장님을 일단 선출해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보통 회의 진행하듯이 안건들 심의하고 의결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명단은 제가 연락처까지 해서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렸고요. 이번에 2023년도 7월 14일부터 2025년도 7월 13일까지 임기 2년으로 새

로 다 위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두 분 중에 열 분만 참석을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사실 ‘오늘 안건이 왜 이렇게 많나?’ 생각을 하실 텐데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도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이어서 이번에 할 것은 내년 에 보수정비할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 건이 살짝 많은데 현상변경 건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총 네 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중에 동산분과가 열두 분이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유형문화 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중에 동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로 조사·심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정하고 현상변경에 관련된 업무 흐름도 인데요. 다들 지정조사를 해보셔서 아실 테지만 지정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합니다. 사전심의, 지정심의를 하는데요. 오늘 할 것도 사전심의, 지 정심의 두 건이 다 올라와 있고 이 사전심의를 하고 난 뒤에는 지정예고 라고 해서 시보에 예고를 하고 한 달간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에 따라서 지정심의를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래서 지정 절차는 이렇고 또 지금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처리계획 심사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오늘 할 것 중에 내년도의 사업을 선정 검토 해서 보조금 신청하고 교부해서 내년도에 이 보존처리계획서가 들어옵니 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사전선정 검토도 하고 보존처리계획서가 들어온 건에 대한 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지 정기준이나 이따가 보실 보존처리계획서에서 어떤 점들을 보셔야 하는지 안내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매월이 아니고 격월 로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래서 1년에 여섯 번 개최를 하는데 보통 격월 로 셋째 주 금요일 10시가 회의 일시였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다수결에 의해서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장소나 회의방식이나 수당 같은 것은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고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 ○ ○○○ 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위원회 운영이 이번에 처음 구성

돼서 제일 먼저 할 일 ○ ○ ○ 장님을 먼저 선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안 오시기는 했는데 혹시 조금 이따가 하실지 아니면 지금 바로 하실지는 얘기를 한 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 ○ ○ 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니까 지금 선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대개 연장자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 ○ ○ ○ 과장

그럼 오신 위원님 중에 추천을 해 주십시오.

○ ○ ○ ○ 위원

○ ○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 ○ 과장

그러면 회의는 ○ ○ ○ 위원장님이 주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원장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은 심의·의결 시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신 위원께서는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원회 제척, 회피 안내입니다. 위원회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피 신청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

칙 제3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여러 심의와 관련해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기피 신청할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첫 위원회라서 인사를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 과장

오늘 오신 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의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대학교에 계신 ○○○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대학교 ○○에 계신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학회 이사로 계신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대학교 ○○학과에 계신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에 계신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대학교 ○○학과에 계신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의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대학교 ○○에 계신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그리고 위원장님은 인사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문화재정책과에서 동산문화재 지정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 ○○○ 팀장

저는 ○○○이라고 하고요. 새로 문화재연구팀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 ○○○ 주무관

문화재정책과의 ○○○라고 합니다.

(장내 박수)

○ ○○○ 과장

이번에 문화재정책과 새로 소임 받고 와 있습니다. ○○○입니다. 반갑습

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오늘 첫 회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 주무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존처리계획 심사는 다섯 건인데요. 종로구에서 지장암 산신도, 석조가섭아난입상 및 복장유물 두 건을 발표를 해주실 거고 도봉구에서 천축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성동구에서 미타사 책거리병풍을 발표를 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봉은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흰개미 관련한 긴급보수 건으로 오늘 그렇게 다섯 건 심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 <지장암 산신도 외 1건>

(종로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지장암 산신도 외 1건 보존처리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사업개요를 시작으로 유물 개요, 분석조사, 계획 순입니다.

본 사업명은 2023년 지장암 산신도 외 1건의 보존처리이며, 사업금액은 4,94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지장암 산신도 보존처리와 석조가섭아난입상 접합입니다. 사업목적은 유물의 장기적인 보존상태 유지와 형태 및 재질 변형 예방입니다. 처리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유물의 보존처리장소는 ○○문화재연구소이며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이고 시설 규모는 155.95㎡입니다. 저희 연구소 내부는 모

두 전면 옷칠이 되어 있으며 평균 온도는 22°C, 습도는 50%입니다. 현재 소화기와 화재 진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는 지문 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CCTV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대상 유물은 지장암 산신도 1점으로 1901년에 제작되었고 현재 시도유형 문화재 제28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업 내용은 보존처리입니다. 석조가 삽아난입상은 1683년도에 제작되었으며 현재 시도유형문화재 제329호로 과업 내용은 접합부 접합입니다.

산신도의 손상상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변색과 퇴색이 일어나고 표면 오염도 나타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결손과 안료의 박락이 일어나고 일부 분에서는 굽힘이 나타납니다. 또한 찢어진 부위에서는 균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조가삽아난입상은 목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 현재 이 분리된 부분의 파편이 박락되고 있으며 이전에 접착제로 접착했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닥면에는 기도문이 적힌 종이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또한 손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재 조사는 비파괴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해체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사는 이루어져서 분석하고 있으며 해체 후에 또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색차 값을 오염 부위와 바탕 재질을 측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고 처리 후에도 수 차례 측정해서 처리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할 것입니다.

XRF 측정으로 안료를 분석한 결과 산신도에 사용된 안료는 백색, 황색, 금색, 적색, 옥색, 녹색, 청색, 흑색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안료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개화기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안료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교체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보존처리계획 수립 외에 현재 1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차후 향후 보존처리 과정에 따라 2~4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신도 보존처리 계획입니다. 산신도는 불교회화 유물의 일반적인 지침을 따라 처리할 것이고 우선 소도구를 이용해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할 것입니다. 또 안료 박락이 예상되는 곳은 안정화 처리를 하는데 1~3% 아교 수용액으로 먼저 처리하고 우뭇가사리풀로 진행할 것입니다. 산신도는 배접이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화본의 초배지는 남기고 구배접지를 제거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배접 회수를 늘려 전통 한지로 총 4회 배접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찢겨져 균열이 생긴 부분은 최대한 맞물려 배접한 후 배면에 꺾임방지띠를 부착하여 더 보강할 것이고 결손부는 적합한 재질 및 강도의 직물로 단차가 적도록 앞면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틀은 해체 후 휘어짐 정도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면 그 틀을 재사용하고 만약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결구법으로 새로 제작할 것입니다.

석조가접아난입상 목 부분은 분리된 부분의 단면은 경사로 인해 접착제만으로 접착 시 머리 무게로 인해 재분리 될 우려가 있으므로 티타늄 또는 스테인리스로 된 얇은 심과 에폭시 수지로 접합하고자 합니다. 바닥면의 종이 또한 분리 시 손상될 우려가 있어 자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분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로 부착하기 위해 적당한 습을 가해 주름을 펴주고 풀로 안착하고자 합니다.

심의 후 저희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이 두 안건인데요. 둘 다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장암 건입니다. 하나는 불화이고 하나는 조각인데 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12월 말에 끝나니까 중간쯤 진행이 된 거죠? 자문회의 몇 번 거쳤습니까?

○ 사업관계자

한 번 했습니다.

○ ○○○ 위원장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훈증 처리는 할 수 있나요?

○ 사업관계자

훈증 처리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위원

훈증에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훈증 약재가 시판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불화를 보면 훈증 처리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처리계획서 작성할 때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분석 결과만 보고서에 나열한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안료가 검출됐는지 해석도 해서 보고서에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울트라마린블루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검출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보고서에 내실 있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조가섭아난입상은 붕을 가지고 보강한다고 했는데 붕을 박을 때 어차피 손상이 가잖아요. 구멍을 뚫을 때 나오는 입자들을 버리지 말고, 그게 아마 경주 불석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뚫을 때 나오는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말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네.

○ ○○○ 위원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보여주신 사진에는 액자형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현재 상태인가요? 가장자리에 틀은 없어진 거죠?

○ 사업관계자

아직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 ○○○ 위원

아직 모르는가 봐요.

○ ○○○ 위원

이 보고서에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는 상태인가요?

○ 사업관계자

네.

○ ○○○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색맞춤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면에서 보건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보건을 한 후에 색맞춤을 하게 되면 옆에 번지기 때문에 그게 옆쪽 물감이 번짐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리 오리목이나 이런 것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직접 보건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다가는 다 번져서 옆에 있는 색채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지금은 대부분 염색한 정도에서 끝내고 색맞춤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 ○○○ 위원

최근에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앞에서 할 경우에 그런 손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 의논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 현재 있는 위치에서 떼어낸 것은 아니죠?

○ 사업관계자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에 가져왔습니다.

○ ○○○ 위원

프레임이 현재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옛날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럼 아래쪽에 보면 위쪽보다 굉장히 많이 해져 있거든요. 그 처리도 실제로 거기에 보건을 하면 아래는 지탱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림을 한 번 봐주세요.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현재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산신도를 보면 아래쪽에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단순히 보건 처리만 하게 되면 나중에 텐션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래 부분은 나중에 자문위원한테 의견을 받으

시면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게 나중에 실제로 설치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계속해서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여기 아난입상은 불석이든지 석재에 티타늄이나 스테인리스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요새 보면 수리할 때 돌하고 티타늄을 하게 되면 티타늄의 강도가 너무 세서 거꾸로 원래 유물을 손상시키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스테인리스라든지 티타늄이 아니라 저 돌의 성질에 맞는 것으로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주면 어떨까. 실제로 지금 국보라든지 보물을 처리할 때도 티타늄으로 할 때 문제가 티타늄이 너무 강해서 팽창되거나 해서 원래 유물을 손상시킨다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 사업관계자

그래서 저희도 티타늄이나 스테인리스를 한 이유가 장단점이 있어서 녹스는 것과 무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이게 부드러운 재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문회의 때 실제로 석조를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 ○○○ 위원

그것은 석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티타늄이라는 성질을 잘 모르고, 가장 최첨단 것이고 가늘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하는데 그것 자체가 강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석재의 문제가 아니라 석재와 금속 재질하고 같이 연구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 위원장

특히나 이게 일반 석재가 아니거든요. 경주 불석이라서 굉장히 물러요. 티타늄 굵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 ○○○ 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불상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면에 접착제로 되어 있던 것은 그냥 사찰에서 대충 붙였던 것 같고 그래서 꼭 그렇게 뚫어야 하는 것인지도, 이게 검토가 된 건지 궁금해요.

○ 사업관계자

그때 자문회의 때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또 탈락이 되어 재처리를 계속하면 단면도 계속 깎이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나중에 한 번 해보자 그런 것으로,

○ ○○○ 위원

‘해보자’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 유물 안에서 팽창하는 부분들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 종이를 붙이든지 이것은 물리적인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을 한 거고 여기에 뚫으면 이것은 훼손이 돼서 이후에는 은진미륵이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안쪽에 뚫어놓은 것을 보강, 보강, 보강하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구조물이면 지금처럼 뚫어서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그런데 야외 석조물은 옛날에 녹이 스는 철재를 넣었기 때문에 그게 녹이 슬면서 팽창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녹이 안 스는 것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저것은 그냥 접착제로 붙이면 그대로 모셔놓고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거나 했을 때는 접착제 성분이 5~10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목이 부러질 염려가 있어서 조금 박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아주 큰 것을 박을 필요가 없이 5mm 정도의 봉만 들어가도 그게 들어가 있으면 저게 쉽게 분리가 안 됩니다. 훼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죠.

○ ○○○ 위원

그런데 최근에 티타늄을 가지고 수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것 자체가 비라든지 특히 탐비의 글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얇으니깐 거기에 티타늄을 박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떨어질 가능성

이 높다고 예전 같으면 저기에 살짝 대나무만 박아도 고정이 돼요. 그래서 전통방식으로는,

○ ○○○ 위원

그러니까 썩지 않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면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기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야외에 있는 석조물은 일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대나무만 박아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상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손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 정도 되는 철봉이 박아났는데 다행히 그게 박혀 있어서 머리가 땅으로 안 떨어져서 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살아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아마 떨어져서 결국 그 부분이 박살이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 위원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 위원

예, 예. 나중에 자문회의 할 때 들어보시죠.

○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신지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문위원회 한 번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서울시 위원 분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계시나요?

○ ○○○ 주무관

저희가 이 심의가 끝나면 보존처리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님들 중에 자문회의를 3회 정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언을 하시고 자문회의 중심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종로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그러면 처음 지장암 산신도에 대해서는 훈증이나 안료 분석 내용을 보고서에 실는 내용, 그다음에 색 번짐에 대해서 자문 의견을 받아보라는 말씀을 하였고 아래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난 입상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봉을 성질에 맞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문회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천축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도봉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

○ 도봉구청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유형문화재 천축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축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를 족자 형태로 말아서 괘불함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로 꺾임과 주름으로 인하여 안료 박락 및 바탕재의 훼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방치 시 비로자나삼신괘불도의 훼손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보존처리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7,46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보존처리 계획은 시공업체에서 발표하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사업 내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천축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이고요. 괘불 한 폭의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현황을 보시면 천축사에 가서 7월 17일 손상 현황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현미경 관

찰이나 손상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손상유형은 일단 화면 전체적으로 꺾임이나 주름이 많이 발생한 상태이고요. 아마 과불을 말았다 폼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탕면이 찢어지거나 결실된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채색 층이 박락된 부분들 그리고 색상이 약간 변색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접지 쪽은 전체적으로 곰팡이나 얼룩 그리고 배접지가 찢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불은 대응전 동측 벽면 불단 아래에 있는 과불함에 모셔 있고, 이것은 천축사 대응전 내부 현황입니다.

본격적인 보존처리는 유물 이운부터 해서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 그리고 다시 유물을 반납, 보고서 작성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존처리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자문회의는 유물 이운 후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보존처리 과정에서 배접지를 모두 제거한 상태 그리고 결손부 보강부터 보존처리가 거의 완료된 시점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그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보존처리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천축사 과불을 옮겨서 처리할 보존처리실 세부 사진과 내용들입니다. 일단 방법 설비라든지 공조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보존처리에 대한 기반 시설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본격적인 보존처리 진행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물을 이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수사 과불하고 개암사 과불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이용했습니다. 천축사는 사실 이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업체가 보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이 되면 저희가 헬기를 통해서 이운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천축사 과불이 다른 과불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인 남자 여덟 명 정도가 힘들지만 일단 인력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존처리실로 옮기고 나면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비파괴 조사를 기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조사가 끝나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부터는 처리를 진행할 텐데 안료 박락이나 손상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완료 안정화 처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상축과 하축을 분리하는 해체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체가 끝나면 기본적인 먼지를 털어내는 건식세척과 오염물질을 닦아내는 습식세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척까지 끝나면 처리 과정에서 불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싱 작업, 임시 보강작업을 표면에 진행하고 보강 작업이 끝나면 불화를 뒤집어서 차례대로 배접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배접지 제거는 증류수를 배접지 전체에 분무한 배접지 간에 풀이나 접착제가 약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시는 것처럼 한 겹씩 제거할 것이고요. 혹시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배접지 층위를 저렇게 표시해서 일단 모아둘 예정이고 처리가 끝나면 천축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접지 제거가 끝나면 다음 다시 바탕천에 찢어진 부위라든지 결손부에 동일한 재질의 천으로 메움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메움이 끝나면 재배접을 진행할 것입니다. 재배접은 기본적으로 배접지를 제거한 층위만큼 동일하게 배접을 진행할 텐데 혹시 불화의 특성이거나 아니면 손상 형태에 따라서 자문회의 때 결정된 층위만큼 자문회의를 통해서 배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결손부는 결손부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똑같이 위사, 경사에 맞춰서 결손부 메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손부 메움에 사용하는 직물은 천연 염색을 해서 주변의 색상과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색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결손부 보강과 배접까지 끝나면 다시 재장을 진행할 것이고 그 축은 해체한 다음 자문회의를 통해서 특별히 손상이 심하면 새로 제작을 한다든지 할 것이고 아니면 재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관함이 괘볼귀가 있는 한데 이운 과정에서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이운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축사로 다시 유물을 반납할 때 기본적인 훈증소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리기술자와 기능자, 자문위원 등등 수리기를 제작해서 수리기도 부착하고 다시 유물을 반납, 그리고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 작성까지 해서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 ○○○ 위원장

사업관계자 발표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 ○○○ 위원

작년에는 헬리콥터 운송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빠졌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냥 유물 이운으로만 3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 때문에 제가 천축사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메고 내려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려오다가 놓치면 어떡해요?

○ 사업관계자

사적 조사를 네 명이서 했는데 다른 과불은 길이가 10m 정도 되고 무게도 상당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천축사는 어쨌든 과불축 길이까지 하면 3m 정도라서 충분히 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 ○○○ 위원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천축사 바로 내려오는 계단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사업관계자

그런데 그때는 보수업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못 해서 내역을 못 넣었던 부분인데,

○ ○○○ 위원

도봉구에서 오셨죠?

○ 도봉구청 담당자

예.

○ ○○○ 위원

이것은 헬리콥터로 해야 해요. 이운하는 과정에 잘못해서 유물을 놓치거나 해서 손상이 가면 누가 책임져요?

○ 도봉구청 담당자

그래서 천축사 요사체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건축자재나 물건을 옮길 때 같이 옮길 수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상의해서 헬리콥터 이운을 반영하겠습니다.

○ ○○○ 위원

예. 작년에 분명히 저는 그 비용을 보고 저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종 책정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또 하나, 보존처리 장소는 어디예요? 회사입니까?

○ 사업관계자

예.

○ ○○○ 위원

흔증도 하신다고 했는데 약품 보유하고 계신지요?

○ 사업관계자

예.

○ ○○○ 위원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과불이 무거우니까 줄이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강재, 지금 이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삼축으로 하면 훨씬 강하니까 배접 회수는 줄여서 하거나 밑에 소나무나 아니면 나무봉을 가벼운 재질로 바꾸거나 해서 어떤 것은 120kg짜리를 70kg대로 낮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는데 이 무게에 대해서 나중에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무게까지는 아니고 손상부를 보니까 옆 부분이 횡으로 찢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바람이나 다른 영향으로 더 쉽게 찢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과불을 처리할 때 저희가 양 옆에 삼배띠나 줄을 넣어서 찢어짐을 방지했거든요. 이번에도 자문 때 그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감리 업체 정해져 있죠. 감리는 지금 안 하나요? 동산문화재 전체가 다 감리가 없어요? 3억 이상만 있나요?

○ 배석

네.

○ ○○○ 위원

보관함 제작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굵게말이축은 안 하시나요?

○ 사업관계자

굵게말이축은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면 말 때 다시 꺾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 ○○○ 위원

그래도 크게라도 해서 굵게말이를 해야 조금 더 손상이 덜 갈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현장에서 원 궤불함을 봤을 때 공간이 충분해서 보존처리 후에 굵게말이축으로 해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공간은 충분합니다.

○ ○○○ 위원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 ○○○ 위원

이 비용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배지를 남겨두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5세기 이후 불화이고 상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9세기 이후 것은 초배지를 제거해도 안료 손상이 덜할 것 같고 오히려 초배지를 남겨두고 만약에 그게 산화가 심하다면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관계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배접지를 다 벗겨낸 상태에서 자문회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 ○○○ 위원

초배를 남겨두고 자문회의를 한 다음에 제거할 것인지 남겨둘 것인지 그

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위원

굵게말이를 하는 것 자체가 배접을 두껍게 하는 거거든요. 두껍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게 단단해져서 실제로는 꺾임이라서 보존에 있어서 좋은 방식이 아닌데 계속해서 보존처리를 할 때 굵게말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보관함이 있는데 이 보관함이 아닌 다른 이운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데 왜 새로운 것을 만드는지요?

○ 사업관계자

만약에 헬리콥터로 할 것이면 괄불 자체를 천으로 감싸든지 해서 이운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위험할 것 같고 일단 이운을 조금 더 안전하고 쉽게 하기 위해 이운함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현재 보관함은 다시 사용할 거죠?

○ 사업관계자

예.

○ ○○○ 위원

보관함을 만들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보관함을 쓸 건데 여기에 보관함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현재 괄불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오는데 보관함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보관함도 실제로 이것을 만들 때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것을 다 수리하고 나서 보관함을 계속 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 ○○○ 위원

상태가 좋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태가 좋다는 것은 이 과불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상태가 이 과불함하고도 실제로 관련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관함 안이든지 외부든지 문제가 되는 것을 조금 더 처리하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굵게가 아니라 여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 위원

굵게말이축을 해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것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사업관계자

처리 전에 기본적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예. 그다음에 봉을 위하고 아래에서 아래 것을 조금 더 낮춘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펠럭거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어디가 뜯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탈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래쪽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 있는 봉들도 조금 더 확인해보고 나중에 명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무게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 ○○○ 위원장

결손부 메움에 대해서 지침을 주실 게 없나요?

○ ○○○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염색을 한 다음에 그것을 쓰신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처럼 한 다음에 색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천의 두께나 이런 것은 한 번 더 보세요. 너무 단단하면 안 되니까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같은 재질로 하겠습니다.

○ ○○○ 위원

유사 재질이어도 요새 초배지가 너무 두꺼워요. 18~19세기 경복궁 유물도 뜯어 보면 굉장히 얇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잘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업관계자

제가 샘플을 갖고 와서 자문회의 때 자문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봉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그럼 삼신괘불도 안건에 대해서는 운송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헬리콥터 운송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고, 굵게말이축과 초배지 제거 부분을 고민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보관함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탈락 부분과 결손부, 천 재질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문 의견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그리고 보관함은 왜 지정을 안 했을까요? 한 번 봐서 보관함이 괜찮으면 그것도 지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다 같이 지정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조사를 해보고 지정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 위원

제 추측인데 아마 같이 지정이 안 된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 □ <미타사 책거리 병풍>

(성동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

### ○ 성동구청 담당자

성동구청에서 왔습니다. 저희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미타사의 책거리 병풍이라고 작년 3월 24일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작년에 문화재위원님들께서 미타사에 오셔서 병풍을 실제로 보셨고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보조금을 받았고 저희가 용역사와 계약까지 이루어져서 용역사 측에서는 조사까지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과업 기간은 올해 7월 24일부터 올해 12월 11일까지 올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과업 내용과 보존처리 내용은 용역사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의 문화재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지정이 되었고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시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타사 정수암에 소장된 책거리로서 종이에 채색한 8폭 병풍입니다. 전체 크기는 92.5×332cm 정도의 여덟 폭의 병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서가가 생략된 책거리이고 고동기와 서책, 꽃과 과일 등의 식물이 다수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얇게 설채되어 있고 짙은 푸른색과 옅은 붉은색이 많이 쓰인 화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이고 책거리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적인 가치로는 기물의 입체감이나 원근감의 표현으로 따졌을 때 궁중의 책가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주는 원근감과 입체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전조사 차원에서 과학적 조사와 간단하게 분석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물질이 있는 부분, 얼룩, 결실, 표면이 마모된 곳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

염이 된 것을 구분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풍화·훼손도를 작성했습니다. 상황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위쪽 정중앙의 사진은 7~8폭의 하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왼쪽은 기존에 상황이 되어 있었던 부분, 회장과 하면 쪽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은 7폭 병풍인데 이 왼쪽의 상황 위에 하선과 회장을 그 위에 바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덧붙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저희가 아직 전체를 다 해체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 드러나 있는 부분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1폭부터 6폭까지는 어떠한 양상으로 남아 있는지는 추후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인데요. 하선 부분은 견, 수자직으로 확인이 되었고 회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견, 수자직, 그리고 오른쪽에 후대 상황으로 재장황한 부분은 하선은 견, 평직으로 확인이 됐고 곁에 싸여있는 부분은 면, 능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이 부분에 대해서 섬유 식별을 하느라 저희가 C-stain 정색 반응을 실시했습니다. 화본 부분은 침엽수 펄프로 확인이 되었고 홍협 부분은 대나무섬유, 그리고 중간의 백협 부분은 닥섬유로 확인되었고요. 후대 상황을 해서 다시 그 위에 얹힌 회장 부분은 다시 침엽수 펄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간단히 안료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바탕 부분과 적색, 청색 크게 다섯 가지의 굵직한 종류의 색깔별로 구분했습니다. 검출된 원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황, 칼슘, 납 그리고 황색 부분에서 약간의 납이 나왔고요. 녹색 부분은 구리, 흰색은 티타늄화이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보존처리 과정은 조사 및 분석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다시 한 번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체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까지가 저희의 과업 내용입니다.

상태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요. 그리고 재질 분석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내부를 벗겨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병풍틀로부터 화본과 회장을 다 분리하고 양모뿔으로 털어내는 건식 세척 과정을 거친 후에 번짐 테스트를 부분적으로 실시한 후에 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습식세척을 할 예정입니다. 보강용 재료는 닥종이와 침엽수 펄프, 면, 닥섬유가 혼합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종지로 확인이 되었는데

요. 메움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과 같이 비슷한 종으로 염색을 하거나 종이를 새로 제작해서 보강용 재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풍을 해체했을 때 그 병풍틀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현재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후 보존처리에 착수한 이후에 기술 자문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때 가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재사용을 할지 아니면 새로 제작할지는 현재는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처리가 완료된 다음에는 형태에 맞는 보관 형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병풍이다 보니까 한 번 보관 천으로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포갭 또는 보관함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존처리 한, 여러 가지 기존에 확인되는 보존처리 이력들을 같이 작성해서 수리기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보존처리 공정은 이 심의의 최종 승인이 난 이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올해 12월 11일까지 과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차 자문회의를 했던 자문의견서인데요. 크게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7~8쪽에서 기존의 상황 형태가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가급적 보존처리를 할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훈증도 하실 거죠? 여기에 빠져 있어서요.

○ 사업관계자

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 위원

미타사 조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재도 있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관함은 천 이런 것보다는 요새 중성지로 해서, 박물관 같은 데는 병풍 이런 것은 거기에 만들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티타늄이 검출됐다고 했는데 사실 한참 뒤에 나오는 안료잖아요. 18세기 말에 나오는 안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나중에 보고서에 왜 티타늄이 검출되었는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 보수할 때 그런 흰색 물감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것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사실 이 유물은 그림도 중요하지만 병풍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게 그 지정 당시에 많이 고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자문의견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병풍을 되도록이면 재사용 할 수 있으면 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나 크기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병풍은 한 번 해체를 해야 하잖아요. 해체를 했을 때 이 병풍 자체가 오래된 병풍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크기, 재료 이런 것을 충실하게 기록해서 보고서에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미타사 책거리 병풍은 크기를 92.5×332cm로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로×가로'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 미타사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존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관할 것 같나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인계해 오기 전에는 미타사의 한 방에 잘 모여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 ○○○ 위원

왜 그러냐면 펼쳐놓으면 훨씬 바람도 불면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보존처리하고 나서 포갑

에 싸놓기만 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꺼내 보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한 활용 부분도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8쪽은 원형이 나오고 후대에 복원 수리한 게 나오는데 해체하게 되면 원형 재질 천이 나오는데 저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직물을 새로 짜야 하잖아요. 밀도가 지금 측정이 안 되어 있어서 수사직하고 평직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밀도를 조금 더 봐서 그 밀도에 맞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7~8쪽이 염색은 천연염색인가요? 7쪽의 빨간색은 천연염색인 것 같지 않은데 7쪽의 청색은 천연염색인 것 같아서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분석해본 것은 화본에 있는 안료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 위원

직물은 분석하고 병풍 부분은 회장에 해당되는 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병풍을 복원 처리할 때도 살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새로 짜야 할 때도 밀도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조사해서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풍의 기본 구조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 ○○○ 위원장

공기가 다섯 달이 채 안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 사업관계자

최대한 저희가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만, 보존처리에 무리가 된다고 하면 발주처에 요청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성동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그러면 미타사 책거리 병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훈증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보관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이 나온 화이트 부분도 있고 사진 같은 것을 보고서에 충실히 작성해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보다 병풍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재사용하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보관을 잘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 그리고 밀도에 대한 얘기와 전체적으로 공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문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사항입니다.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입니다.

□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 ○○○ 위원장

발표해주세요.

○ 김명(문화재사업팀)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에 문화재사업팀으로 발령받은 김명입니다. 이 안건이 제가 제일 먼저 조사한 건이었어요. 유형문화재 471호로 공사 명칭을 보면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이라고 해서 네모난 박스에 보시면 33구가 여기 있거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존상 불상들이 있잖아요.

○ ○○○ 과장

이것은 문화재 긴급보수 건입니다.

○ 김명(문화재사업팀)

이게 4월에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명부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있

는 현황 사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문화재 33건에 해당하고요. 이 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이름이 명부전인데요. 명부전 안에 이 문화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바닥에 흰개미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이런 흔적들이 있죠. 밑에서 흰개미가 먹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나는 흔적들이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보호시설을 생각하고 건축분과에서 한 번 나가봤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보호시설만 생각했는데 보호시설이 명부전인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이 극락전과 만월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보다 보니까 4월에 바닥에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 흰개미 피해가 아닌가 해서 동산분과 위원님들은 나가지 않고 건축분과 위원들만 나가셨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해도 한 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 위원님이 추가로 보셨어요.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동산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동산도 주변의 시설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긴급방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긴급보수 건으로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 ○○○ 위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과 쪽에서 올해 긴급방제로 2,200만 원 정도로 토양 처리하고 방충제 바르는 정도의 흰개미 방제 처리를 하는 것하고 탐지건을 데려가서 흰개미 탐지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건축분과 위원님들이 지금 있는 목조문화재에 혹시 흰개미 피해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조사를 나갔는데요. 가서 명부전을 봤을 때 현재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흰개미 피해는 육안으로만 확인했는데 확인이 거의 안 됐고요. 그런데 저 건물을 보셨듯이 건물 내부에서 어딘가는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면 저 건물 전체를 훈증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억 단위가 돼서 이번에 제가 의견서를 쓰는 것은 지금 계획된 긴급처리로 하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흰개미의 피해가 있으면 전체적인 훈증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썼거든요. 흰개미를 잡는 방법이 만약 기둥에 흰개미가 들어 있으면 거기에 직접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넣는 방법도 있고 주변 토양에 약재를 뿌려서 외부에서 흰개미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방충제를 발라서 하는 방법들이 있

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전체를 훈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요. 명부전도 건물이 되게 크잖아요. 만약에 하면 7~8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계 설치한 다음에 씌우기를 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은 까만색 비닐을 씌우는데 그 비용만 해도 2억 정도가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전체 약재를 넣어서 하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저것을 그렇게 하면 몇 달 동안은 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저것은 주기적으로 관찰을 자세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위원

그럼 현재 것은 그냥 위의 마루에만 하고, 마루 말고 밑에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라오는 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니까요.

○ ○○○ 위원

대부분 기둥에서 올라가면서 머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것은 여기에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다른 쪽에 흰개미가 살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엄청났어요. 수백 마리의 흰개미가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흰개미 피해가 목조건물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다른 문화재 중에 제가 직접 가서 흰개미가 살고 있는 것도 봤는데, 흰개미 탐지견이 한 번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몇 백만 원이더라고요.

○ ○○○ 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건축분과 소관이죠?

○ ○○○ 과장

예. 명부전은 건축분과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장보살삼존상하고 시왕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쪽은 피해가 없어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먼저 방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

이것과 성제묘라고 을지로에 있는데 조그만 사당입니다. 거기는 배수가 안 돼서 아래 협문이 다 썩어서 약간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수하려고 해서 가서 사당을 만져봤는데 흰개미를 봤어요. 현재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 훈증을 해야 합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봉원사 건에 대해서는 흰개미 군체 제거와 방제하는 것을 긴급 승인으로 2,120만 원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자문 얻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다음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입니다. 아까 절차를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사전심의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나중에 확정하는 절차로 해서 이 사전 심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악학궤범 건이고 악학궤범은 前 ○○대학교 ○○○ 교수님이 참석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악학궤범>

(○○○ 입장)

○ ○○○

방금 소개받은 ○○○입니다. 악학궤범은 조선조 성종 때 성현 등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편찬 동기가 악원, 악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의 장악원입니다. 장악원에 있던 의궤, 악보 이런 것들이 낡고 해졌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거기에 잘못된 것도 많고 빠진 것도 많다. 이래서 성종이 대대적으로 기존의 것을 보정하도록 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학궤범의 탄생 배경에는 어쨌든 장악원의 의궤와 악보가 있었고 탄생 배경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었

던 곳이 바로 장악원이었고 그 장악원이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악부를 거쳐서 오늘날의 국립국악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학궤범은 사실은 여러 차례 간행이 됐는데요. 성종 때 만들어진 이 초간본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없고 재간, 삼간, 사간 이렇게 됐는데 재간본은 규장각에 또 장서각에 나눠져 있고요. 삼간본 역시 규장각에 있는데 이 사간본은 중요한 것이 영조의 어제서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서문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성현 등이 쓴 서문은 아예 뒤로 보내고 이런 건데 이게 중앙도서관에 사실은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에 이 전질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악학궤범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배경에 장악원이 있었고 또 그 악보와 의궤가 낡고 해지도록 그렇게 활용됐던 건데 바로 똑같은 두 권이 중앙도서관과 국립국악원에 나누어져 있지만 그 국립국악원은 악학궤범의 탄생이 됐던 장악원의 현행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악공이나 악인들 혹은 관료들의 손때가 묻었다는 점에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학궤범이라는 것은 권1이 음악 이론 전반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권2에는 악대의 규모와 악기 배치, 음악 절차, 곡목, 춤 그리고 악보 같은 경우는 악보와 악장가사를 다 담고 있잖아요. 음악에 관한 것은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권3, 권4, 권5에는 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권3에는 고려사 악지 속에 있는 당악과 속악의 춤을 담고 있고요. 권4~권5에는 각각 당악정재, 향악정재를 권으로 나누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권, 7권에는 각종 악기들,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치수, 명칭 등 디테일하게 그림과 설명으로 도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죠. 그다음에 8권과 9권은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으니까 기타 소품들, 예를 들어서 의물들 있죠. 무용이나 이런 데 쓰이는 의물. 또 관복도설 해서 악사나 악공의 관복의 제도나 모양 이런 것들이 도설로 다 나와 있고 무인들의 무용수들의 복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학궤범은 음악 분야만이 아니라 의물과 복식사 연구 등 각 분야에서 두루두루 굉장히 중시되었던 자료입니다.

2번 원형 유지 정도를 보면 9권 3책의 내용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과 국립국악원에 두 가지가 있는데, 2

권이 있는데 국립국악원에 있는 것은 의미가 매우 깊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조사 결과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회의 자료로 첫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 교수님께서 조사위원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악학궤범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미술사, 복식사,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초간본은 일본에 있고 나머지 것 중에 혹시 지정된 게 있나요? 왜냐면 규장각에 1610년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인쇄본이라도 지정된 것이 있는지.

○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것이 아악과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 ○○○ 위원

네. 알겠습니다.

○ ○○○

그리고 이 초간본부터 재간본 이하는 내용이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악학궤범은 조선왕조 존속기간에 국가의례 시행에서 전범(典範)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의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 ○○○ 위원

재간본이나 창간본이 다 안 되어 있는데 사간본이 비록 장악원이 썼다고 하지만 가능할까요?

○ ○○○ 위원

지정을 신청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 ○○○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규장각이나 어디와 공동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봐서 신청한 데서 하는 게 우선이라면 실제 내용이나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신청되고 난 다음에 그 번호에 또 부속으로 되는지.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컨대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하는 건데 전에 제가 신문 뭐할 때도 보면 다른 더 중요한 것은 제기가 안 되어 있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신청됐다고 해서 일부 처리할 수 없어서 일괄 전수조사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의의는 선생님 말씀대로 중요한데, 장악원이 직접 썼으니까. 그것보다 먼저 간행되고 그런 형태로 또 동일본이 있고 할 때 특히 인쇄물이기 때문에 동일본이라는 게 항상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간본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재간, 삼간, 사간은 기본적인 악학궤범 자체 내용은 같은데 사간본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서문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고 오히려 기존의 초간본에 있던 서문이 뒤로 갈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것들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사실은 세 종류로 구별되겠습니다. 초간, 재간, 삼간, 또 하나 사간. 사간은 재간, 삼간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조의 어제서문이나 이런 기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 ○○○ 위원장

○○○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연대가 100년 빠르고 이런 악학궤범도 있는데 18세기 악학궤범을 먼저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이지않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 신청을 해야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쪽에 규장각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 주면 좋은데 안 하거든요. 자기네 보관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악학궤범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함께 일괄 올린다 하면 그것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과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 교수님은 가시고 위원님들 토론하는 절차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교수 퇴장)

○ ○○○ 위원장

지금 조사위원 세 분 모두가 지정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지.

○ ○○○ 위원

중앙도서관에도 사간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악원 것과 똑같은 건가요?

○ ○○○ 위원

똑같아요.

○ ○○○ 위원

거기도 어제가 있어요?

○ ○○○ 위원장

영조 어제가 있어요?

○ ○○○ 위원

예. 다 있어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 위원

똑같은 건데 신청은 이쪽만 했기 때문에.

○ ○○○ 위원

국립에 있는 자료는 좋은 자료도 많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우리도 50점 가까이 신청했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조금씩 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 ○○○ 위원장

거기서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요.

○ ○○○ 위원

워낙 많고 그리고 국립국악원에서는,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 ○○○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규장각이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정하면 그게 더 먼저 여야 하고 하게 되면 약학궤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수조사 해서 어느 것을 지정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 ○○○ 위원

나중에 가지 번호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그래서 요즘에 국가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청에서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를 하겠다는 게 계획성 있게 전수조사 하면서, 국회 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본인이 국가에서 기관에서 신청을 해야만 했는데요.

○ ○○○ 위원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정 신청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 ○○○ 위원

거기서 먼저 지정하고 안 된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 ○○○ 위원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것을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문화재 지정이라는 시스템에 따라서 심의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그런데 서책이나 문서나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규장각이 많이 거론되는데 규장각은 아쉬운 게 없어서 거의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청된 자료 위주로 하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면 후발로 신청되는 것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 ○○○ 위원장

일단 현실적으로 신청한 문화재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지정을 보류하고 시간을 두는 것도 좋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고요. 예산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그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악학궤범 자체로는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면 우선 저희는 올라온 것만으로 판단해서 지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 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유형문화재 지정이 가하다고 정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로제타 훔 일기입니다. ○○○ 위원님과 ○○○ 위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 <로제타 훔 일기>

○ ○○○ 위원

○○○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로제타 홀 일기라고 이 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성분이 1894년부터 1934년까지 미국 감리회 해외 선교회에서 파견되는 선교사로서 의학적인 것들을 많이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세 권 나란히 되어 있고 위에 펼쳐져 있는 부분인데 1권부터 4권까지가 실제 일기이고요. 왼쪽 끝에 있는 것과 중간에 사이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5권~6권 육아일기입니다. 아이가 둘 있었는데 육아일기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두루마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노트를 들고 다니기 힘들니까 두루마리로 해서 써서 붙여서 저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었고 1권에 고스란히 다시 옮겨놨습니다. 지금 상태는 오래 돼서 양지로 되어 있었는데 바스라질 정도, 펼치기는 펼쳐봤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기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진도 붙이고. 외형상 보면 굉장히 자료가 풍부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일기 내용 파견 직전부터 시작해서 파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1권에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증기선을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일기 형식이 성경의 말씀 명언이나 문구로 항상 시작합니다. 독실한 신자이고 단순한 성경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신학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가지고 명언들을 하나씩 꼭 집어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인데 매일 적은 것은 아니고요. 두서너 달 뛰어넘은 것도 있기도 합니다. 내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의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면 ‘1892년 6월 27일 어느 집에서 혼례를 했는데 영국공사관에 가서 힐리어 대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스크랜턴 대부인이 조출한 결혼식을 마련해 주었다.’ 본인의 결혼식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예요. 한국에서 선교를 해서 한국의 풍경이나 풍속 등에 대한 것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1890년 10월 10일 ‘부산에서 국상 때문에 남성들이 흰색 갓을 입고 여성들도 흰색 옷을 입었다.’ 다른 이야기는 없고 이 내용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제물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가마꾼이 어떻게 뛰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주변의 풍경을 감성적으로만 표현했고 이런 것들만 주로 쪽 나와 있고요. 3권에는 한국의 법과 풍습이라는 그리고 미신에 대한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락힐이라는 사람이 'The American Anthropologist'라는 것을 1891년에 게재를 했던, 'Notes on Some of the Law, Customs, and Superstitions of Korea'라는 한국의 법과 제도 그다음에 관습, 신앙 이런 것에 대해 쓴 것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에 있었던 기간이 짧은데도 일본은 의외로 꽤 써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교사들 간의 관계 문제,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교회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늘 신경을 쓰고 지원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선교를 할 때 어려움이나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교 탄압 이야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기에 그런 것들도 있고 주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개인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펼쳐봤고 이것이 현재 번역이 돼서 세 권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로제타 홀의 선교사 후손들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 기증을 하게 돼서 한국에 들어와 있고 현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형 상태는 사진에서 보셨듯이 테두리 부분, 가장자리가 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책 상하에 반창고를 붙여놨습니다. 의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반창고를 붙여서 더 이상 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아까 그 두루마리는 그 정도 상태입니다. 사실 이 일기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선교를 하면서 했던 것이고 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애인이었던 윌리엄 홀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편지가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가족과의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미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주로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환자와의 치료 관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기 형식 자체가 주로 성경 문구라든가 성경이라든가 명언 문구, 그날그날 일에 대해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히 신앙적인 이야기가 주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측면들의 이야기입니다. 흥성사에서 번역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제타 홀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에스더 박이라고 하는 의사를 사실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 이화학당 내에서 여성병원, 인천기독교병원, 동대문 볼드윈 진료소, 인천간호보건대, 평양에 있는 기흥병원, 광혜여원, 마가렛 어린이병동,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고대 의대, 청각장애인학교, 점자도 만들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많이 들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기독교 사회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기흥병원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했으면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당시 조사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 ○○○ 위원장

지정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유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불가능하더라도 혹시 저희가 등록문화재 위원회가 있나요?

○ ○○○ 주무관

저희가 등록문화재까지 같이 합니다.

○ ○○○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화재자료로 불가능하면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재 것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의 일기는 없기 때문에 문화재 자료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 전체, 제가 등록문화재를 본 바에 의하면 등록문화재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여기서 등록문화재는 할 수 없고 등록문화재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 ○○○ 위원

우리가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 ○○○ 위원

등록문화재도 아니에요?

○ ○○○ 과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어떻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내는 것이지,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 ○○○ 위원장

그쪽에 전달을 해서 유형문화재나 자료가 아니라 등록문화재로 다시 신청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것은 지정문화재 지정은 부결로 정리하고 등록문화재로 신청하도록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입장)

다음 안건입니다. ○○○ 교수님이 계시니까 64페이지입니다. 시용무보 관련한 내용입니다. ○○○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시용무보>

○ ○○○

시용무보라는 것은 종묘제례악에서 춤 그 일무를 각 동작과 술어를 악곡별로 순서대로 기록한 도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 역시 조선조의 장악원으로부터 이왕직악부로 전해왔고요. 1930년 당시 사실은 일제에 의해서 종묘제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재현할 때 주요 참고서로 활용

된 바 있고요. 이후에 1955년에도 김기수에 의해서 종묘의 일무가 재창작 되는데 김기수는 1930년대에 애초에 복원됐던 일무를 학습한 자로서 그의 재창작은 기본 바탕이 1930년대 김영제의 복원에 기초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날 무형문화재인 종묘제례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 시용무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용무보는 옛 장악원으로부터 이왕직아악부, 구왕궁아악부를 거쳐 현재의 국립국악원으로 전해진 매우 신뢰할 만한 사료인데요. 무보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전체가 네모난 칸으로 짝 이루어져서 서문이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춤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행이 사실은 작은 소행과 큰 대행, 그래서 소행에 악보를 적고 대행이 춤의 동작을 적고 춤에 관한 동작의 용어, 술어를 적고 있습니다. 이 시용무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무보입니다.

○ ○○○ 위원

○○○ 위원님께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 위원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이 조사를 할 때 같이 참여했는데요. 다른 유물과 같이 조사를 하면서 갔다가 여기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도들이요. 그래서 일단 회화사적 측면에서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회화사적인 측면에서 그림들을 살펴보더니 연대가 1610년 언저리로 보고 있는데 그때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그전에 있었던 의궤들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조 대에 임란 이후에 출간된 의궤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규장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림의 화풍이 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록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 중에 18세기 초의 연대가 확실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이 후대의 그림과 다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체 비례가 3장,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회화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현재 비정이 되고 있는 17세기 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 ○○○

제가 그냥 마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용무보의 편찬연대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조 4년 또는 대악후보라는 책이 1769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전의 편찬설이 있고 세간을 한참 떠들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인 세조대 편찬설이 있고 세 번째는 일제강점기 편찬설인데, 일제강점기 편찬설은 악보 처음과 마지막에 ‘이왕가도서지장’이라는 도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근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목살해도 될 텐데, 문제는 1번도 인조 4년 또는 대악후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인조 4년에 선조의 자손이니까 선조를 임진왜란을 견뎌낸 중시조라고 해서 중광이라는 악장을 넣기 위해서 기존 용광이라는 것과 정명이라는 것이 분장되어 있던 것을 합쳐버리고 자기 할아버지를 찬양하는 중광이라는 곡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종묘 제례악에 일대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전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시용무보에는 용광과 정명이 분장되어 있고 중광이 첨입되지 않았습니디. 그러한 이유로 인조 4년 이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용무보에 묘사된 무도 동작의 그림이 제가 보기에다 과거 도화서 소속 화공의 솜씨로 여겨질 정도로 정채하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에 고도서 수집 시기에 장악원으로부터 전해오던 책에 단순히 이왕가도서지장을 찍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음악적인 조건이 특히 세종 때 만들어진 정간보의 편천사를 보건대, 이 시용무보는 바로 세조 때 것은 확실히 아니다. 지금 세간을 완전히 도배질하고 있는 것이 세조설인데요. 세조 때의 것은 아니다. 왜? 비록 낙장 두 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하나의 악장 소무라는, 정대업의 첫 곡인 소무라는 곡이 빠져 있어요. 세조 9년에 이게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돼서 10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적에 모든 소무가 포함된 전악장이 연주됐기 때문에 그때의 악보라고 하는 것은 억측이다. 그리고 그 후대 영조 때의 악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선율의, 리듬의 변화가 있었는데 영조 때와 가깝지 세조 때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정간보의 변천사에서 6대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 창안보에서는 세 칸, 두 칸, 세 칸, 세 칸, 두 칸, 세 칸을 이렇게 묶음을 해요. 그랬는데 이것이 세 칸이니까 소위 3, 두 칸이 2. 그렇게 해서 ‘3, 2, 3, 3, 2, 3’이 비율이 있는데 이게 조선 중기로 오면서 비율이 같아져요. 세 칸이든 두 칸이든 ‘3=2=3’의 길이로 바뀌는데 바로 이게 17세기 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용무보의 악보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대악후보, 영조 때의 악보에 근사하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악보의 추정 연대를 1610년부터 1626년 사이로 봤습니다. 조사대상본은 그렇고요. 이 무보가 현전하는 유일한 무보인데 1924년과 1935년 이왕가장서 각고도서 목록을 봐도, 또 1921년 조선총독부고도서 목록을 봐도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전 장악원으로부터 이왕직악부로 전해지되, 그 지도자급인 음악인들 사이에서 유용되는 무보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여부는 저희야 철실하게 이것은 정말 국내에 유일 무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없어질까 봐 매우 염려되므로 저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일무를 추고 있는 무희라고 해야 하나요? 이들의 옷 색깔이 여기에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 ○○○

남색입니다.

○ ○○○ 위원

남색인데 현재 종묘라든가 사직이라든가 문묘까지도 다 입고 있는 옷은 붉은색이거든요.

○ ○○○

조선 초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변함없이 이 시용무보대로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금 악공복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바로 이 시용무보의 역할입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 퇴장)

시용무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네 분 모두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유일본이고 17세기인 것이 ○○○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정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규격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되어 있어서 규격 부분은 다시 한 번만 다 통일을 시켜 주세요. '세로×가로'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 것은 다 '가로×세로'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조사위원 네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신청으로 올리는 겁니다.

- ○○○ 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리는 것으로.

- ○○○ 과장  
알겠습니다. 시용무보 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

- ○○○ 위원  
이번 심의 대상은 채용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오계엽 초상화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 족자가 위아래 비단을 대고 좌우에는 비단을 대지 않고 화면을 그대로 확장하고 줄을

그러서 화면을 구획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축에 보면 꽃무늬 모양의 금속 장식이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이 시기에 채용신 초상화에 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그다음 페이지에 세부 사진이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네모난 칸을 두르고 거기에 묵서로 ‘迎和堂吳公影幀讚’이라고 써놨고요. 그 아래쪽에는 역시 도장을 찍고 채용신이 그렸다는 묵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잘 아시는 채용신이라는 화가가 1928년 5월에 제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특이한 것은 그림 좌측에 찬문이 쓰여 있는데요. 찬문 내용은 보고서에 있고요. 그 아래에 도장을 하나 찍었는데 그 도장은 ‘春菴’이라고 읽히고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도장은 ‘李垞之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고종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에 해당합니다. 그 찬문은 번역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초상화로서의 특징을 보면 손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손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많은데 이게 근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손을 노출시키고 부채를 쥐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화법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명암법이라든지 음영법 이런 것이 아마도 이 당시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채용신 특유의 방식이 적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오계엽이 누구인가를 찾아봤는데요. 이분의 호가 영화당 이고요. 고종 초, 1903년에 중추원의 의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최익현 등과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고 중요한 게 이 초상화가 그려졌던 1928년에 전라도 정읍의 유림들이 발의를 해서 하청사라는 사당을 세우는데 여기에 최익현, 임병찬, 오계엽 등을 모시게 됩니다. 임병찬은 초상화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이분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 글씨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의친왕 이강이 썼습니다. 그리고 임병찬 초상화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11년에 역시 채용신이 그린 것이고 하청사에 모셔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도 이강의 찬문이 거의 같은 방식, 같은 글씨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초상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하청사는 지금은 소실돼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경매에 출품된 것을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구득을 한 것인데, 족

자는 조금 낡았지만 전체적으로 화면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장처에서 2019년에 부분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해서 지금은 매우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거기에 참고도판으로 김동효 초상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채용신 초상화로서 지정된 것은 국가 지정이 한 점 있고요. 시도 지정으로 된 것은 18점 정도가 있고 서울시 지정으로도 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20세기 초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오계엽의 초상화를 그리고 의친왕 이강의 찬문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신이 그린 아주 정교한 그림의 화풍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도 높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과 다른 채용신 작품의 사례로 봤을 때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조사위원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바쁘게 가져야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 ○○○ 위원

만약에 의친왕이 그것을 안 썼으면 문화재가 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겁니까?

○ ○○○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 위원

의친왕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거예요?

○ ○○○ 위원

의친왕이 없어도 이 정도는 아까 김동효 초상화도 충청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 ○○○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채용신 것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진으로 보고 한 것이. 그러면 다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 ○○○ 위원

그때그때마다 주인공, 인물의 중요성, 그림으로서의 예술성, 보존상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높은 수준으로 갖춰졌을 때 지정문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신의 초상화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검토를 할 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위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가 같이 할 때까지만 해도 1910년까지로 하한을 해서 지정했는데 현재 오계엽의 경우는 1928년이거든요. 물론 이분이 독립운동도 했고 하청사라는 공간에 모셔졌던 것도 확실하고 그다음 연암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의미가 있는데 혹시 1928년인 것도 저희가 지정을 할 것인지. 예술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상태도 좋고 그 당시 의복이나 초상화, 회화 모든 면에서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연대가 1928년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 ○○○ 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는 1910년 정도가 경계였어요.

○ ○○○ 위원

참고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채용신 초상화 같은 경우 1910년대부터 많은 작품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일 하한으로 내려오는 것은 여기에 제가 수록했던 김동효 초상화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인데 1926년 작입니다.

○ ○○○ 위원

지금 국가 것은 몇 년도가 지정되어 있죠?

○ ○○○ 위원

국가는 1905년 최익현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최익현 것이 보물로 됐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 하한을 1910년으로 저희가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는데.

○ ○○○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7년에 지정된 것이거든요.

○ ○○○ 위원

그렇죠.

○ ○○○ 위원

제 기억에 예전에 법장사 괘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920년까지 서울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 ○○○ 위원장

옛날 기억에 ○○○ 위원님과 같이 했는데 수로 된 불화 같은 것도 연대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 것도 연대가 1910년보다 늦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희귀해서 지정했거든요. 그런 가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1910년으로 딱 지정하면 세월도 흘렀는데 너무 경직된 경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위원

동의하고 그다음에 회화적인 솜씨라든지 서양화법이 유입되고 작품도 굉장히 좋고 해서 저는 동의하면서 1928년이어서 그동안 안 됐던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지정하면 충청남도예 1926년 김동효 초상 말고는 대부분 1910년 정도여서.

○ ○○○ 위원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고희동이나 1910년, 1920년대에 그린 그림도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 위원

현재 그런 그림들은 근대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의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보물이나 이런 것으로 바뀔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하지만 절대연대 자체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렇습니다.

○ ○○○ 위원  
최근에 태극기는 그것보다 내려가도 지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919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있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서울시도 그것을 약간 오픈하면서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너무 작품이 좋네요.

○ ○○○ 위원장  
조사위원 세 분이 모두 지정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위원회에 서로 다른 의견이 없어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20분에 회의 재개하겠습니다.

(정회)

(속개)

□ <삼층장>

○ ○○○ 과장  
삼층장부터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번 건은 삼층장에 대한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주셨던 ○○○

전 ○○께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입장)

○ ○○○

이 건도 그렇고 다음 건도 마찬가지로인데요. 구조나 형식이나 비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경기·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경공장이 잘 만든 조선 후기 목가구로 보입니다. 삼층장이고요. 이 유물의 특징은 비례라든가 다 좋고 그런데 흑칠과 주칠을 같이 썼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경공장 중에서 주칠을 쓰는 게 왕실용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후기 말로 가면 양반덕에서도 이런 것을 쓰는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유물이 역사박물관에 있는데 이 역사박물관 것을 봤을 때 형식은 달라요. 4층 책장이기는 합시다만, 같은 경공장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역사박물관 유물을 비교 해드린 이유가 같은 주칠과 흑칠을 썼어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것은 오히려 더 정돈이 되고 은판에 주칠을 잘하고 골재에 흑칠을 하고, 반면 조사대상인 공예박물관 것은 동자, 쇠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칠을 하고 본판에는 오히려 흑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칠이 아주 적게 들어가고 많이 박락이 되어서 아주 적은 분의 주칠만 보이고 역사박물관 것은 더 보존도 잘 되어 있고 주칠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목가구에서 주요하게 봐야 하는 금속 장식에서도, 보시면 감잡이 밑에 조이질한 이런 금속 세공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대상인 공예박물관 것보다 역사박물관 것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선 후기에 경공장들이 잘 만든 가구들은 아직은 좀 남아 있고 이 유물만 특별하게 가치를 더 부여해서 문화재 자료라든가 민속자료라든가 유형문화재로까지 지정할 만하지 않다. 왜냐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을 먼저 지정해 봤을 경우에 다른 것들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개인소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서울시에서 유형문화재든 민속자료든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사위원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 <책 반달이>

두 번째, 책 반달이 역시 물론 남아 있는 책자들 중에서는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책 반달이라고 해서, 반달이 아시잖아요. 앞으로 여는 앞반달이 형식에 다리를 붙이고 위에 천판이 경상 형식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아름답고 다리까지 길게 붙여서 비레미도 그렇고 현대 가구로 봐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비레미가 좋습니다. 명품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만듬새도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도 유물이 남아 있고 특별하게 이것만을 지정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할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게 없다. 명문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대 양식에 따른 다른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공예박물관에서 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구입유물이에요. 저도 구입할 때 갖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경중에 있어서 조금 더 잘 만든 것, 조금 더 보존처리가 잘 된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불리 이것을 지정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문봉호 오층농>

세 번째 것은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유물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입 유물인데, 이 유물의 특징은 족대에 중앙 부분에 저렇게 명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 명문의 내용을 보시면 ‘京城寺洞衣穢元祖元興号特製商文鳳鏞’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문봉호’라는 목수가 1910년대부터 장전을 열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1931년 신문기사에 이 장전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1931년까지 이 사람이 장전을 열었고 가구를 만들어 제작 판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이 명문을 보면 나중에는 관훈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경성4동에 있는 장전인데 이게 원조이고요. 그다음에 원흥호라는 게 상호입니다. 원흥호라는 장전의 특재상 문봉호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죠. 그래서 근대 가구에 있어서 장인 이름을 명시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시기에 근대식 가구를 만들어서 상호를 직접 새겨서 이렇게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고, 굉장히 고급가구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첨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옛날 엽서에 보면 기생 뒤에 서 있는 가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의 특징은 문봉호가 제작했다는 데 있는데 문제는 문봉호가 제작한 게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아직 시대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들이 아직 연구가 안 되고 아주 단편적으로 문봉호라는 장인의 기록만 딱 두 가지밖에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구는 밑에 반달이하고 탁자를 결합한 형식의 새로운 근대식 가구라고 보면 되겠고 유리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가구의 형식과 조합을 한 근대식 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래 비교유물을 보시면 경기도박물관에 이 문봉호가 만든 것과 똑같은 명문이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워낙 그 시대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가구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은 개인소장이예요. 그래서 전부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쓰여 있지만 내용은 같아요. ‘京城寺洞…’ 해서 자기 이름까지 넣어놓은 게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용인시박물관에 기증받은 건데 이것도 제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보존상태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런 데에 조각도 되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운데에 명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인 이름이 새겨진 근대 가구라는 의미는 있지만 아직 발견된 것도 네 점이고 최근에 막 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선불리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공예박물관에서 구입 유물들을 계속 올리면서 지정받고 싶어 하기는 한데 이런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의 유물보다 근대가구로서의 상징성, 앞에서 말한 명문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기상조이다. 앞으로 조금 더 자료를 모아서 더 연구가 된 다음에 시기 구분이 된다면 정리된 다음에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의 두 건은 지정 불가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 것은 지정 보류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문이 있는 가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죠. 그 시대의 장인 이름이 명기가 됐다는 것, 그다음에 장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네 점이나 있는데다가 앞으로 발견되는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정말 이 문봉호의 작품을 근대 가구이지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공예박물관 측에서든 다른 학계에서든 좀 더 연구가 되어서 뭔가 좀 더 분명해지면 그때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 ○○○ 위원장

경기도에 있는 작품들도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죠?

○ ○○○

전혀 지정된 게 없습니다. 목가구는 사실 지정된 바가 없고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순전효황후 정도만 민속자료로 되어 있고 목가구는 지금 말씀드린 명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민속자료라든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논의하시죠.

(○○○ 퇴장)

세 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죠. 의견이 거의 다 같으니까요.

○ ○○○ 위원

의견 없습니다.

○ ○○○ 위원장

네. 그러면 지정 불가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 과장

그러면 삼층장, 책 반달이, 문봉호 오층장에 대해서는 희소성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이 있고 다른 목가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불가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교인·소내교인 관련 지정문화재 심의입니다. 이 조사를 하셨던 서울시 ○○이신 ○○○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내교인·소내교인>

(○○○ 입장)

○ ○○○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의동에서 2018년에 출토된 유물이고요. 조선시대 왕비의 결재 도장, 행정용 도장인 내교인과 소내교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의 센트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이즈는 보시는 대로 4cm, 2cm 내외 정도가 됩니다.

왕실에 소장된 인장 관련 자료인 ‘보인부신총수’라는 책에 도서들과 함께 크기 등이 실려 있는데 그것들과 크기나 형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대조를 해본 결과 출토된 유물은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별이 됐고요.

그러면 저게 형태상으로 온전하지 않게, 물론 땅 속에 100년 정도 묻혀있던 것이기는 한데 외부적인 변형이 굉장히 많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저 작은 소내교인은 특히 심한데 저 정도는 땅에서 묻혀있을 때의 변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변형됐다고 보여서 고종 때 기사를 찾아봤더니 1876년 고종 13년에 경복궁 화재가 있었는데 이때 내전 권역들이 대부분 불에 탔고 그때 왕실에 있었던 도장이 전부 다 소실되어서 같은 해 그리고 그다음 해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입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정인데 그때 불타서 버리거나 녹여버리기에

는 왕비의 도장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근처에 있는 땅에 매립을 하고 다른 것을 내입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같이 조사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현재 왕실에서 나온 국세나 왕이 썼던 도장은 국가 지정으로 대부분 지정되었고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궁박물관에 대한제국 때 왕비가 썼던 도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것은 조선시대 것이기도 하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질의 있으면 하시죠. 전세품이 아닌 출토품이면 의미가 있겠네요.

질의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 퇴장)

○ ○○○ 위원

발굴하자마자 저를 불러서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지만 발굴품으로 나온 게 거의 없고 그 자체가 상태도 여러 가지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되면 이것은 또 나중에 국가지정 문화재로도 갈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왕비 것이 없거든요.

○ ○○○ 위원장

왕비가 이어서 쓴 거죠? 앞의 왕비가 쓰던 것을 뒤의 왕비가,

○ ○○○ 위원

아니요. 그 사람이 쓰던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한 사람이 쓰면 그다음 왕비는 또 새로 만들게 된 건가요?

○ ○○○ 위원

네.

○ ○○○ 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지정하시는 것으로 하죠.

○ ○○○ 위원

누가 쓰던 거예요?

○ ○○○ 위원

아직은 몰라요. 명성황후라고 추정은 해요.

○ ○○○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교인·소내교인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방광불화엄경소입니다.

□ <대방광불화엄경소>

○ ○○○ 위원

원래 화엄경이라고 해서 화엄경들은 두루마리로 해서 신라 때나 고려 때 많이 지정되어 있고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당나라 징관이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송나라 때 정월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서 만들어진 것을 화엄경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통 120권에 40책 정도로 발간되는 게 일반적인 거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데 하동 청계사에 있는 것만 문화재자료로 완질에 가까울 정도로 40책이 다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것은 송광사 판인데 그것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귀진사 판을 가지고 찍어낸 것으로 1636년 무렵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18세기 이후에 후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후쇄했던 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7권에 25책으로 해서 분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이것은 이미 화엄경소도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보물이 11건 정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2건 정도로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조사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 위원

동의합니다.

○ ○○○ 과장

그럼 이 화엄경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는 이것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심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심의를 하셨는데 그게 지난 5월에 심의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지정 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지정 예고 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여기서는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시는 절차입니다.

○ ○○○ 위원장

이 아홉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심의를 거친 것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 ○○○ 주무관

제가 어떻게 사전심의가 끝났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 5월 19일 제3차 동산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서 법화영험전 등 아홉 건에 대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可', 문화재자료 지정 '可'로 의결을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보에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예고 결과 어떤 의견도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법화영험전 등 여덟 건에 대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장

모두 아홉 건에 대해서 지정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시면 지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과장

아홉 건에 대해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2024년 서울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 검토

다음은 내년도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보수사업 예산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연구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 팀장

현재 동산분과 쪽으로 접수된 것은 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다 개별적으로 사전에 전문가 검토 및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요. 보고서가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쪽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안양암 팔상도>

첫 번째 것은 안양암 팔상도입니다. 시 유형문화재 제187호이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하셨고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신청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과다하다고 해서 50%인 1억 2,500만 원으로 조사의견이 나왔고요. 뒤에 81페이지부터 보시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천공 같은 것도 뚫려 있고 상태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 위원

보존처리를 하고도 이것은 관리 소홀이라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만 펜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에는 상관없지만 아래쪽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룡사 칠성도>

○ ○○○ 팀장

두 번째는 청룡사 칠성도입니다. 유형문화재 제202호이고요. 2005년도에 지정이 됐고 86페이지에 보시면 천공이라든지 오염, 찌른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고요.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역시 사업비는 과다하게 판정이 되어서 6,170만 원 요구했는데 5,000만 원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보존처리 하시는 기술자 분이 가서 바로 결과를 받은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청룡사 현왕도>

다음은 91페이지 청룡사 현왕도입니다. 유형문화재 203호이고요. 92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천공이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95페이지부터 상태를 보시면 전각에 봉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타격 등으로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예산은 3,200만 원인데 전체 3,200만 원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법장사 목조여래좌상>

97페이지 법장사 목조여래좌상입니다. 문화재자료 제81호이고요. 목조여래좌상의 여러 가지 보관 상태 불량 부분이라든지 갈라짐, 박락 이런 부분이 보존처리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고 역시 신청예산은 5,067만 원인데 검토예산으로는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뒤에 102~103페이지 상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 <배자예부운락>

그다음에 105페이지 배자예부운락이라고 하는 시 유형문화재 제488호입

니다. 법장사 소장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서적 상태가 열화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 손상이 많은 상태로 보고가 됐고 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2등급을 받아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급성 등이나 신청예산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체 요구 예산이 3,726만 원이었는데 거의 3,7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태가 쪽 나와 있고요. 열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 <불조삼경>

다음은 불조삼경이라고 하는 문화재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89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역시 법장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적류인데요. 열화가 심한 부분, 물리적 손상하고 황갈색 오염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 보관이 상당히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존처리의 시급성도 인정이 되고 신청예산의 적절성도 인정이 돼서 신청예산이 2,928만 원에 검토예산은 2,92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117페이지부터 상태가 쪽 나와 있습니다.

□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다음은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현재 유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묘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신도석하고 문인석이 어쨌든 지의류, 조류에 의한 환경적 오염이 심하고요. 산성비의 흑화라든지 이런 게 심해서 세척 등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역시 전문가 위원님께서 나가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시급성하고 신청예산의 적절성이 인정이 돼서 전체 신청예산이 2,500만 원인데 검토예산도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현황 사진을 보시면 흑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해서 세척이라든지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봉원사 산신도>

다음은 봉원사 산신도입니다. 유형문화재 467호이고요. 13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손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총해로 인한 손상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시급성은 인정이 됐으나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신청예산 6,000만 원인데 검토예산은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염이라든지 열화가 돼서 손상된 부분, 물리적인 손상 부분들이 보여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 <봉원사 도량장엄용 불화>

다음은 봉원사 도량장엄용 불화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81호이고요. 현재 1권 29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접 들뜸 같은 것이라든지 화면 산성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워낙 수량이 많아서 저희 쪽으로 신청이 됐고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급하여 일부 보수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역시 신청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세 건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신청예산은 9억 9,400만 원 요청하셨는데 5,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폭이 29폭인데 그중에 3폭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 <봉은사 시왕도>

다음은 봉은사 시왕도입니다. 유형문화재 제506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요청 내용은 한 폭인데, 전체적으로 안료 박락하고 꺾임에 의한 손상 그 다음에 바탕재 열화로 인한 산화·변색. 그래서 정기조사에서 2등급을 받았 습니다. 역시 현지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급성이 인정되나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예산신청이 1억 3,500만 원이 요청됐는데 8,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부사진을 찍어서 손상도라든지 색이 박락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 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청룡사 감로도>

다음은 청룡사 감로도입니다. 유형문화재 제204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전

체적으로 폭이 조금 큰 상황인데 오염이라든지 부후, 구멍이 생긴 부분들을 보존처리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조사로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급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신청예산이 적정해서 4,500만 원 요청했는데 4,33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56페이지부터 현장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보존처리를 하면 나중에 물리적인 손상은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 <봉원사 도량장엄용 불화>

다음은 봉원사 도량장엄용 불화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8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19점이나 되다 보니까 신청금액이 많았습니다. 배접지 들뜸 부분이라든지 곰팡이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산성화가 진행되어 있고 보관상자 제작까지 요청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전체가 19점인데 칠여래도 7점, 사보살도 4점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예산은 6억 5,700만 원인데 검토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뒤에 163페이지부터 칠여래도하고 그 현황 사진이 쪽 보이고 있습니다. 훼손된 상태라든지 그런 게 보이고 있고요. 다른 권속들 사진은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사천왕이나 신중이나 이런 것은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 <봉은사 목 사천왕상>

다음은 봉은사 목 사천왕상입니다. 유형문화재 제160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예방적 차원으로 보존처리를 해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3D 스캔도 있고 일부 손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천왕상에 손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존처리 요청이 들어왔고요. 조사내용으로는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데 일부 절단된 손가락하고 비파 접합 부분의 보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에 좀 더 균열 부분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1억 3,4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손가락하고 비파 수리비용 1,000만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

○ ○○○ 팀장

네. 그다음에 범주사 수정암 석불좌상입니다. 유형문화재 제26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동국대학교박물관에 있습니다. 정기조사 결과 D등급이 나왔고 백화 현상, 오염물 세척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일부 필요하나 신청예산은 조금 과다하다고 합니다. 이게 실내에 전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위원

실내에 있는데도 백화가 되나요?

○ ○○○ 위원

꼭 백화라고 보기보단 하얀 물질이 부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태는 좋습니다. 그런데 세척을 한 번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팀장

세척 예산 정도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풍화가 심하지 않고 내부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 관찰해야 하는데 어쨌든 정밀조사 사업, 보존처리 이런 부분의 예산으로 요청은 4,000만 원 하셨는데 1,8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오염 같은 것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178페이지부터 쪽 보시면요. 세척을 한 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 ○○○ 위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세척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 팀장

예. 다음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96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범장사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질 열화가 역시 심하고요. 황갈색 오염이라든지 곰팡이 등이 심해서 C등급을 받았고 현장조사에서는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고 세척이나 결손부 보강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예산은 2,359만 원인데 검토예산은 1,300만 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위원

이것은 표지를 보면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보수이력 같은 게 있나요? 표지를 보면 이미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개장된 것이어서요. 그런 보수이력 같은 게 정확히 우리 시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 팀장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전체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187페이지 보시면 일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간 결손부가 있습니다.

○ ○○○ 과장

소유자가 보수를 한 흔적은 있는데 저희가 따로 예산이 지원된 적은 없었습니다.

□ <봉원사 독성도>

○ ○○○ 팀장

다음은 봉원사 독성도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66호이고요. 독성도의 가장 자리 부분의 손상이라든지 균열, 변색, 오염 등 그다음에 손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원형 유지를 위한 보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고요. 전체적으로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 시급성은 떨어지고 신청예산이 좀 과다해서 현재 6,000만 원으로 요구했는데 3,000만 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습기에 의한 손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안양암 대응전 신중도>

그다음에 안양암 대응전 신중도입니다. 현재 문화재자료 제1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오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명도가 낮은 부분이라든지 축농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다고 해서 보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현지 조사에서는 일부 오염물이 있지만 양호한 상태이고 보존처리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불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청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은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위원

198쪽 보시면 축농에 의한 오염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처리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정도까지 해주면 안 해 줄 문화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불필요 의견을 냈습니다.

□ <청룡사 지장시왕도>

○ ○○○ 팀장

다음은 청룡사 지장시왕도입니다. 유형문화재 제201호이고요. 폭이 커서 오염이라든지 역시 부후 된 부분, 천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했고요. 검사 결과 보존상태는 양호하고 보존처리가 시급하지는 않다고 결론이 나서 불필요로 판정이 됐습니다.

○ ○○○ 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번과 2번은 목록에 보시면 하기로 했는데 여기 청룡사에만 다 지원해주기는 조금 그래서 이것도 처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두 점보다는 떨어져서 일단은 제외한 상태입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보원사 약사불회도>

○ ○○○ 팀장

다음은 봉원사 약사불회도이고요. 유형문화재 제465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단에 충해, 설치류에 의한 피해가 있었고 오염·변색, 안료 박락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존처리 요청을 하셨고요. 현재 생물에 의한 천 공이 발생되고 있지만 박락은 보이지 않고 현 상태에서 필요치 않은 것으 로 보인다고 해서 보존처리 사업 지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정을 하셨습 니다.

○ ○○○ 위원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랫부분에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뽕뽕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존처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할 때 많이 보 는 게 사실 안료가 얼마나 박락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안료 박락이 심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것도 해야 하는데 봉 원사는 너무 많아서요. 몇 십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 ○○○ 팀장

다음은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입니다. 유형문화재 제 471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불상이 33구, 복장이 18건 43점으로 되어 있 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세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청하신 것 같 고요. 일부 개금부 박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급성이나 필요성 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른 문화재와 형평을 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불필요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 위원

이것도 221쪽을 보시면 머리 부분에 청색 안료 이런 것들이 박락된 정도, 그다음에 불상 하부 쪽에 저것도 카슈칠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봉원사에서 이것을 다 벗겨내고 새로 개금하 겠다고 2억 5,000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것까지 다 하면 봉원사는 몇 십억 원의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 ○○○ 위원

예.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조사를 다니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 ○○○ 과장

그러면 2024년도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20건을 신청했는데 16건은 저희가 전문위원과 수리기술자 분께서 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4건은 불가로 의결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지금 서울시위원회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찰에 있는 동산문화재들의 문제는 관리 소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건을 걸어야 하지 않나. 시에서 이러한 관리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앞으로 보존처리 못 해준다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해제시켜버리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회에서 조건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 ○○○ 위원

그와 더불어 보수 이력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 위원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정하실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고려를 해주세요. 미타사는 1년 만에 보존처리가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감안하셔서 지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태도 같이 보는 거죠.

○ ○○○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제4차 동산분과위원회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